

여성 암환우들의 탈모용 가발 착용 시 불편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진순호*, 김영배**, 박장순***

송원대학교 휴먼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뷰티예술학과**, 송원대학교 뷰티예술학과***

A Study on Improvement Strategies According to the Inconvenience Due to Female Cancer Wearing Alopecia Wigs

Jin Soon-Ho*, Kim Young-Bae**, Park Jang-Soon***

Dep. of Beauty Art, Graduate School of Human, Songwon University*

Dep. of Beauty Art, Dongbang Culture University**

Dep. of Beauty Art, Songw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암환우들의 탈모용 가발 착용 시 불편 사항에 따른 개선 방안을 분석한 결과로, 60대 전후의 여성 암환우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탈모를 인지하게 된 시기는 항암제 또는 방사선 치료 1회 직후가 가장 높았고, 두번째로 2회 후부터가 23.9% 순으로 나타났으며, 암환우들의 가발 착용에 따른 불편 수준으로는 대체로 편리한 편이지만 두피 트러블, 밀착성, 조화성, 등에 있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환우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발 착용 시의 불편 요소 분석 결과 직업에 따라 편리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요인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졸이나 고졸 혹은 대학원 졸업인 경우 현재 재학 중인 학생에 비해 높은 편리성을 보이며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연령차에 의한 차이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불편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가발의 기술 개발과 연구가 끊임없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암 환우, 탈모, 가발, 불편사항, 항암요법, 두피 트러블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for male and female patients aged 60 and over from the results of analyzing improvement strategies for inconvenience due to wearing alopecia wigs. When the patient started perceive their depilatory diseases was right after treatment of anticancer drugs or radiotherapy, and they were found to suffer from inconveniences of being dried, etc. After treatment of chemotherapy, as for the falling-out parts, eyebrows were found to be the highest 52.1%, and pubic hair 38% ,axilla hair 29% in that order. And the inconvenience level of wearing wigs among the patients with the different background of education indicates that the professions of the patients affect the ease of use. It is presumed that the easiness in use which the college graduates, high school graduates, and postgraduates showed is attributable to the age difference. to improve the inconveniences from cancer patients wearing wigs, scape troubles and close adhesion are constantly needed.

Key Words : Cancer patient, Falling-out, Scalp trouble, Wigs, Inconvenience, Chemotherapy, Adhesion

Received 30 May 2017, Revised 31 July 2017
Accepted 20 August 2017, Published 28 August 2017
Corresponding Author: Jang-Soon Park(Songwon University)
Email: anima2929@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인간은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외모지상 주의적 현대 사회 속에서 각자의 미의 기준에 따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외모 관심이 증가되어가고 있다. 빠른 경제 발전으로 물질적인 기반 구축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가꾸고 꾸미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 하고 이로 인하여 미용 관련 산업의 규모나 숫자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1].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인 각종 스트레스에 무방비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빠른 식사 습관, 흡연, 음주 등의 요인들로 인하여 암에 걸릴 확률은 꾸준히 증대되고 있으며 해마다 암환우들의 수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과거에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1위로 굉장히 높은 치사율을 보인 반면 근자(近者)에 들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으로 암으로 인한 치사율은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암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면역요법이 있고 그 중 항암화학요법은 강한 약물을 이용하므로 온몸에 퍼져있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의 분열과 증식도 모두 저해하며 DNA에 직접 작용하여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식이다[2].

암의 치료방법의 하나인 항암요법은 정상세포도 항암제로 치료하는 기간 동안은 손상을 받기는 하지만 정상으로 회복절차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어 암세포가 죽게 된다. 암덩어리를 절제하거나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시행하는데 최근 새로운 화학요법의 발달로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반응 및 부작용의 정도나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로 항암요법이 많은 진전을 보여 왔다[3]. 이러한 암으로 인한 탈모 뿐 아니라 식습관의 변화와 환경오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변화와 세포 분열과 증식이 활발한 두피와 모발의 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그 연령층도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잦은 펌이나 염색 등에 의해 모발의 손상으로 두피의 이상 증세와 탈모 증상을 초래하고 있다[4].

이러한 문제성 두피를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수술이나 약물요법에 의한 의학적 관리와 마사지나 아로마테라피,

푸드 테라피, 등의 다양한 요법들이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방법의 관리로는 두피전용 샴푸를 사용하거나 두피 솔루션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방법 등도 있다[5].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헤어 스타일링을 위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가발 착용이다. 현재 모발 관리의 제품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탈모 관리 제품으로 기능성 제품과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등으로 구분이 되어 지며 탈모 관련 시장은 모발관리 서비스와 탈모관리 시장은 더욱 더 성장하고 있다. 국내 탈모 시장은 탈모의 확대로 탈모방지나 관리 제품의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이다[6]. 국내 탈모 시장 규모는 날로 성장하고 있으며, 탈모로 인한 관심과 두피관리에 많은 투자로 제품의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탈모나 두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전문가나 전문 관리센터들도 늘어나고 있다[7]. 이러한 사회적인 추세 속에서 탈모용 가발 시장 또한 규모가 급작스럽게 팽창한 실정이며, 암환우들의 가발 착용도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증가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암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탈모를 경험한 적인 있는 여성 암환우들을 대상으로 탈모용 가발을 착용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연구하여 탈모용 가발 제작 시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탈모인들의 가발 착용

탈모의 원인을 매우 다양하나 크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그리고 이중적 요인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내적인 요인은 대부분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 결정되며 탈모가 빨리 진행되고 그 정도도 매우 심하다[8]. 또 병리학적인 요인, 당뇨, 동맥경화, 갑상선과 같은 질환적 요인, 항암제, 생리지연제, 피임제, 항응고제 등의 약물의 장기복용으로 인하여 탈모가 나타나게 된다. 외적인 요인은 문제성 두피가 그 원인이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진행된 탈모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발의 이용도가 증가하였다[9]. 탈모는 단순 머리술이 적어짐에 따른 문제 뿐 아니라 외관상의 문제로 인하여 심한 우울증이나 대인 기피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가발의 효용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가발착용은 적어진 모발을 대신하여 본인의 모습과 가장 유사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0]. 또 유행이나 멋을 연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탈모인들의 심적 안심과 정신적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가발의 착용은 또 다른 불편함을 초래하여 정신적 고통을 줄 수 가 있어 가발 착용에 앞서 본인의 상태와 가발의 종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탈모로 인하여 가발 착용 경험이 있는 국내 여성 암환우 12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병동을 방문하여 본 연구에 관한 취지나 목적을 설명 한 뒤 사전 설문조사를 통하여 설문지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한 후, 총 두 달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3.2 연구 도구 및 측정 방법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연령, 학력, 직업, 연봉, 탈모시기, 탈모부위의 총 6문항으로, 가발 착용과 관련된 불편성 및 불편함이 미치는 영향을 선행연구를 수정, 보완하여[11,12]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3 자료 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20.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가발착용 불편함 정도를 알아보기로 교차분석 실시하였다.

셋째, 변수들 간의 상호 관계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Pearson의 상관관계 계수를 산출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em	n	%
Sex	male	4	3.3
	female	117	96.7
Age	20'	5	4.1
	30'	22	18.2
	40'	43	35.5
	50'	38	31.4
	60'	13	10.7
Final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68	56.7
	At university	12	10.0
	College graduate	35	29.2
	At Graduate School	2	1.7
	Graduate School	3	2.5
Job	Office work	14	12.3
	Service	21	18.4
	Production	5	4.4
	Agriculture	6	5.3
	housewife	68	59.6
Income	Ten million	11	9.7
	1-2 Ten million	24	21.2
	2-3 Ten million	50	44.2
	3-5 Ten million	25	22.1
	5 Ten million	3	2.7
Hair loss timing	1 time	61	52.1
	2 times	28	23.9
	3 times	19	16.2
	4 times	7	6.0
	5 times	2	1.7
Hair loss region	Eyebrow	75	62
	Eyelashes	9	7.4
	Armpit hair	35	29
	Nose hair	5	4.1
	pubic hair	42	38

4.2 가발 착용 시 불편수준

암환우들의 탈모용 가발 착용 시 발생하는 불편 요소들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평균적으로 편리성(3.39), 두피 트러블(2.83), 밀착성(2.78), 조화성(2.75), 외모(2.62) 점으로 나타났다. 암환우들이 탈모에 따른 가발 착용에 있어 대체로 편리한 편이지만 다른 기능 (두피 트러블, 밀착성, 조화성, 외모 등)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발 착용에 있어 착용 후 외모에 불편이

많았고 자신의 두피와 모질, 헤어 컬러와의 조화에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발의 탈착 후 가발 관리는 대체로 편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발의 색상과 스타일 선택, 탈착 시의 편리성도 양호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발의 벗겨짐에 대한 두려움이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밀착성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샤페나 수염이나 강풍 등에 따른 벗겨짐 현상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3].

한편 암환우들의 탈모에 따른 가발 착용에 있어 외모적인 부분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정면에서의 앞 이마선과 앞머리, 머리의 분할선의 어색함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목덜미 부분의 가발이 들뜸 현상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본래 모질과 두피, 헤어컬러와 가발의 모질, 두피, 헤어컬러가 다소 조화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발의 모질이나 색상을 다양화하고 두피 특성에 따른 가발 분류의 연구와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주었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따른 두피의 면역 저하로 인해 가발 착용 시 짓무름이나 간지럼증 혹은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암환우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14].

4.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항암 치료 후 탈모를 인지하게 된 시기와 탈모가 진행되는 부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4.3.1 항암 치료 후 탈모를 인지하게 된 시기 차이

암환우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항암 치료 후 탈모를 인지하게 된 시기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성별과 최종 학력,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러 번의 치료 후에 깨닫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학력이 고학력일수록 빠르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의 경우 전업주부와 생산직, 농어업에 종사하는 암환우는 치료 직후에 대부분 인지하는 반면 사무직이나 서비스업종에 속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러 번의 치료 후에 인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4.3.2 암환우들의 연령대에 따른 가발 착용 시의 불편요소

암환우들의 연령대에 따라 항암치료 후 탈모에 따른 가발을 착용함에 있어 편리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외모($F=4.495$, $p<.05$)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성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편리하다고 느끼는 편이었으며 반면, 낮아질수록 불편을 느끼는 편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외모의 경우에는 20대 이하에서 평균 3.25 수준을 보였으나 40대로 갈수록 낮아졌고 다시 높아지다가 60세 이상에서 2.96으로 그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15].

두피 트러블과 밀착성은 20대 이하에서 평균 3.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30-50대까지는 2점대 후반을 나타냈으나 60세 이상에서 다시 3.53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4.4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 활용된 연구 개념 변수들 간에 어떠한 상호관계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Pearson의 상관관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1에 가까울수록 음(-)의 관계, 1에 가까울수록 양(+)의 관계를 갖고 0에 가까울수록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Table 2>.

분석 결과 대체로 외모와 조화성 간에 .325, 외모와 두피 트러블 간 .424, 외모와 밀착성 간 .329, 조화성과 두피 트러블 간 .401, 조화성과 밀착성 간 .252, 두피트러블과 밀착성 간 .239로 세 변수 간에는 상호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암환우들의 탈모에 따른 가발 착용 시 불편함에 있어 외모적인 요소나 조화성, 두피 트러블에 대한 불편점이 개선된다면 후속적으로 다른 불편 요소들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였다. 반면 편리성의 경우는 별도의 개선을 위한 가발 기술 개발이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이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Inconvenience	Appearance	Harmony	Scalp Trouble	Adhesion
Inconvenience	1				
Appearance	-.025	1			
Harmony	-.142	.325**	1		
Scalp Trouble	-.224*	.424**	.401**	1	
Adhesion	-.001	.329**	.252**	.239**	1

*p<.05 **p<.01

5. 결론

분석 결과 대체로 외모와 조화성 간, 외모와 두피 트러블 간, 외모와 밀착성 간, 조화성과 두피 트러블 간, 조화성과 밀착성 간, 두피 트러블과 밀착성 간, 세 변수 간에는 상호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발을 착용하는 암환우들의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며, 연령대는 4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최종 학력이 고졸자가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했고, 직업군은 전업주부가 59.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항암 치료 후 탈모를 인지하게 된 시기는 항암제 또는 방사선 치료 1회 직후 바로 인지하는 경우가 52.1%로 절반가량을 차지하였으며 2회, 3회 안에 거의 대부분 인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로 인한 모발 외 탈모가 진행되는 부위로는 눈썹 (미모)이 121명 중 75명 (62%)로 가장 많았고, 음모 (38%)와 겨드랑이 털 (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암환우들의 탈모에 따른 가발 착용 시 불편함이 개선된다면 후속적으로 다른 불편 요소들도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였다. 반면 편리성의 경우는 별도의 개선을 위한 가발 기술 개발이나 연구가 필요할 것을 본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이다.

REFERENCES

[1] J. H. Kim, "A study examines satisfaction according to scalp & hair care center usage conditions and product purchase attributes", Master of Sung-Shin Univ. 2013.

[2] M. H. Jang, "The Influence of Wearing Wigs on the Quality of Life the Female Cancer Patients Who Started Losing Hair. Ph.D. dissertation" pp. 25-27, Kosin Univ. 2008.

[3] Petersen, J, Chemotheraapy, A Canncer Source Book for Nurse, American Canncer Society Education, 1991.

[4] Y. H. Lee, "The Effect of Scalp Solution for Scalp Hair Condition in Young Women", Master of Kyung-gi Univ. 2010.

[5] S. Y. We, E. J. Im, "Customer Utilization and Satisfaction of the Scalp and Hair Care Salon Applied The Journal of Cosmetological Science", Vol. 6, No. 1, pp. 7-14, 2010.

[6] N. C. Cho, "A Comparative Analysis of Hair Conditions and Hair Care, Dietary Habit, Stress Level and Family History between Hair Loss Patients and Those without Hair Loss", Master of Chung-Ang Univ. 2005.

[7] M. J. Kim, "The research about Scalp treatments by self-recognition of adult's losing hair. Applied Th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3, No.1 pp. 21-27, 2012.

[8] S. H. Park, "A survey of satisfaction on hair loss treatment : a comparison of hair trans plan", Master of Chang-won National Univ. 2014.

[9] B. K. Min, Diagnosis and treatment of hair & scalp disorders. 2005.

[10] K. H. Han, Hair Science. 2002.

[11] S. Y. Ha, "An Empirical Study on the Scalp Care Conditioning for Hair Loss and Customer Satisfaction", Master of Chung-ang Univ. 2006.

[12] Sperling L. C., "The transverse anatomy of androgenetic alopecia. Applied Journal of the Dermatol Surg Oncol", Vol. 3, No.1 pp. 1127-1133, 1991

[13] D. S. Seo, "Life Event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in Patients with Alopecia Areata and Androgenetic Alopecia Applied Journal of the Kore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Vol. 37, No. 6, pp. 733-738, 1999.

[14] H. S. You, "A Study on Wig-wearing, Care Realities, and Recognition in People with Alopeciec

Hair”, Master of Sook-myung Women’s Univ. 2010.

- [15] M. H. Jang, “A Study on Hair piece Applications and Hair Coordinations for Depliatory Customers”, Master of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02.

진 순 호(Jin, Soon Ho)



- 2016년 3월 ~ 현재 : 송원대학교 휴먼대학원 뷰티예술학과 석사과정
- 관심분야 : 헤어미용
- E-Mail : sunho8008@daum.net

김 영 배(Kim, Young Bae)



- 2017년 6월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뷰티예술학과(자연치유학 박사 수료)
- 2008년 4월 ~ 현재 :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이사장
- 관심분야 : 뷰티마케팅
- E-Mail : kat5875@hanmail.net

박 장 순(Park, Jang Soon)



- 2013년 2월 :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 학과(미용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송원대학교 뷰티예술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헤어미용
- E-Mail : anima2929@hanmail.net